

文·安 국민감동 단일화 외치더니 ‘치킨게임’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 게임〉

여론조사 문구 ‘지지도’ ‘경쟁력’ 맞서 이전투구 양상 단일화 효과 반감 우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 물 협상이 21일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대치하면서 어느 한쪽이 양보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 측 하승창 대외협력실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 양측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나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밤 늦게까지 회합과 재개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안 후보 측이 제안했던 공론조사는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적합도 또는 지지도를 묻자’라는 문 후보 측 주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가상대결로 평가하자’라는 안 후보 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또 장외에서까지 양측의 논리싸움에 가세하는가 하면 문 후보 측이 내세우는 ‘만행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감점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때문에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 국민적 감동을 주겠다는 두 후보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서로 유리한 경선표를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로 단

일화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현재 두 후보의 단일화 방식으로는 후보 간 담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론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때문에 양측은 단일후보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적합도’ 또는 ‘지지도’를,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가상대결’을 선호하고 있다.

문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A와 B라는 직접 비교 대상을 C라는 간접비교대상을 통해 측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역선택을 방지할 방법이 없는 것도 치명적 문제”라며 안 후보 측 안을 비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여론조사 문구는 가상대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측 협상팀 지원 관계자는 이날 “중요한 것은 역선택을 막으려고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 정권교체를 위해 누가 이기는가를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느냐 중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느냐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역선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상대결) 이것을 가졌다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후보단일화의 한 과정으로 합의한 TV토론을 21일 밤 맞짱토론 형태로 진행했다. 왼쪽은 20일 문 후보가 한국방송기시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가한 모습. 오른쪽은 안 후보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 참가한 모습.



문 후보 측에서는 당초 적합한 조사를 주장했으나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자 ‘지지도’조사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안 후보 측은 가상대결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 캠프가 특정 문항을 고집하는 실질적 이유는 자신들의 선호하는 문항으로 물어야 단일화 여론 조사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문이라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시기와 휴대폰 비율도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주중의 여론 조사에서, 안 후보는 주말 여론 조사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으나, 안 후보 캠프는 휴대폰 비율이 높은 여론 조사에서, 문 후보 캠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 후보가 내세우는 ‘만행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문 후보 측 이인영 위원장은 “안 후보도 만행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 된다”며 “통 크게 단일화 협상에 임하는 정신을 ‘하품하는 정신’으로 폄하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통큰 양보”를 한다면서 실제로 양보한 게 뭐가 있느냐며 “만행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라”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년비색에 시대정신 담겨...세련미의 극치



김은영의
‘그림 생가’

⑩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가 솔론은 “아름다운 것은 어렵다”고 했다.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힘이 든다는 뜻일 것이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눈으로 보아 즐거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정의한다. 미(美)란 보여지거나 인식됨으로써 쾌감이거나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율령을 주는 것은 지극히 정성을 들여 미의 결정체로서 공극의 완전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 시기였던 고려시대의 ‘청자상감 운학문매병(靑瓷上畵雲鶴紋梅瓶: 국보 제68호)’에서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광휘가 느껴진다. 도공의 공들인 솜씨이지만, 천년을 이어온 미감은 신의 작품인양 감동의 전율을 느끼게 한다. 매병에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른 바탕에 이중으로 상감된 흑백의 원 마흔 여섯 개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매병의 몸체를 한 바퀴 돌면서 보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내리면서 마치 수백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를 흐르는 것 같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골동상에 넘어가려한 것을 간송 전형필(1906~



청자상감운학문매병

1962)선생이 기적적으로 지켜낸 청자다. 이 한 점의 작품에는 한 시대의 정신뿐 아니라 한 사나의 문화유산에 대한 열정도 담겨 있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처음 자기를 만들고, 곧 청자를 만든 나라는 중국이다. 오랜 세월 중국은 도자기의 왕국이었었고 중국은 영어로 도자기의 의미를 지닌 차이나(china)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유럽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중국의 청자를 수입한 고려인은 한발 더 나아가 상감청자를 완성한다. 멀리 아라비아까지 교역을 했던 고려 역시 그 명성으로 지금까지 코리아(Korea)로 불린다. 그리고 보면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에 뚜렷한 각인을 남기는 최고의 가치인 듯싶다. 그 안에는 감각적인 기쁨 너머의 초월, 그 영원성도 함께 자리한다.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

‘택시 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전망 불투명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정부의 반발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판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만

을 남겨졌지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본회의의 상정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버스업계가 22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운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여서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안소위 회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신 의사봉을 전 이춘석 의원은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법사위가 계속 이 법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된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해 관계인 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의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일단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본회의의 상정이 불가피해 보이나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정대로 22~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신종문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기현 수석 원내부대표 등은 당내 일부 인사들은 “아직까지 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광주 동구청장 후보에 노희용씨

당원·주민 여론조사 선출

민주통합당은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노희용(50·사진)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을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이 3명의 경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최근 권리당원 전수조사(30%)와 일반주민 여론조사(70%)를 한 결과, 노 전 실장이 46.7% 득표율을 올려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형근 성원회과 의사는 27.5%, 홍기원 동구의원은 25.9%의 득표율을 올렸다.

민주당은 22~23일 탈락한 후보들



하지만, 이번이 없는 한 노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동구청장 보궐선거는 노 후보와 무소속 양혜령 전 시의원과 무소속 출마를 준비중인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새누리당 최정원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정

- 김중두



분위기 작살내는군

“Thailand: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and Investment Policies”

태국투자청의 투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태국에 투자할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태국은 세계은행이 가장 사업하기 쉬운 나라로 선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태국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 태국입니까?

아시아시장 진입을 위한 허브
태국은 위치상, 중심지의 잠재 고객들이 있는 아시아시장 진입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데 있어 이상적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과 혜택 및 경쟁력의 확보
태국투자청의 한국 투자자를 위한 지원과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고급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로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고, 태국의 FTA 체결로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한층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세계수준의 인프라
현대적인 운송, 통신, 유틸리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거주환경 및 문화생활의 향유
편리한 숙박, 현대적 의료시설 및 레저시설은 거주환경의 편의를 제공하고, 태국의 문화 체험 및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투자를 더욱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상담을 원하십니까?

태국 투자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십시오.

태국투자청 서울사무소
투자공사참사관 Mr. Pichit Dejneerant
전화 : (02)319-9998
팩스 : (02)319-9997
웹사이트 : <http://www.boi.go.th>
E-mail : seoul@boi.go.th
위치 : (우)100-706, 서울시 중구 송파로 17가 25-5 고려대연각타워 18층 1804호

태국투자청의 투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국투자청은 한-아세안 센터와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012년 11월 28일(수)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투자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Thailand: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and Investment Policies”라는 주제로 태국의 산업현황 및 사업 기회 그리고 태국으로의 진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태국투자청 부청장을 비롯하여 산업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태국 상무부 관계자가 태국 사업개시 및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예정이오니, 태국에서의 사업 기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12. 11. 28(수) 10:00 ~ 15:30
장 소: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 대연회장(4층)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주 최: 태국투자청, 한-아세안 센터, 광주상공회의소

참가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 고한석
연락처: 02-319-9998
이메일: boiseoul@hanmail.net

www.boi.go.th
THAILAND BOARD OF INVESTMENT